

# 첫 삽 못 뜬 사업 수두룩...사업·특별법 기간 연장 불가피

## 지자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실효성 높이려면

지자부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성사업 기간과 아시아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유효기간을 각각 5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수도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및 아특법 유효기간 연장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현재 조성사업은 전담 건립과 운영 외에는 뚜렷한 실적이 없는 상태다. 특히 조성사업 중 문화전당 건립에만 국비지원을 의존한 결과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지원 속도로 5대 문화권 사업 등의 추진이 저조하다. 지난해 8월 조성 종합계획 2차 수정안이 발표되면서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내년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을 보인다.

일례로 2023년까지 비엔날레전시관 등이 자리한 중외공원엔 공원과 예술을 엮은 아시아예술정원을 조성할 방침이지만 2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사직공원 옛 수영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야외음악당 건립 사업비 200억도 확정되지 않았다. 두 사업은 조성사업 5대 문화권 육성 계획의 핵심으로, 조달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상태로 향후 기재부와 국회의 과정이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담 건립·운영에만 치중  
5대 문화권 등시작도 못해  
내년 예산 확보 여부 중요  
국비지원을 70%로 높여야

또한, 당초 조성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그리고 아특법은 26년까지가 기한이다. 현재 광주시는 조성사업 기간과 유효기간을 각각 5년 늘린 2028년, 2013년으로 연장해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한 상태다.

당초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조 2912억원(국비 2조 7679억, 시비 7896억, 민자 1조 7337억)이었다. 그 가운데 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 1조 6872억원(국비 1조 3872억, 민자 3000억)이며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지자체사업 3조 6040억원(국비 1조 3807억, 지자체 7896억, 민자 1조 4337억)이었다.

그러나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임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5대 문화권 조성 등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미흡했다. 당초 계획사업비(5조 2912억원) 대비 지난 2018년까지 집행이 27.5%인 1조 4528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조 8384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현재 국비 사업비의 45%인 1조 2703억원만 집행된 상황에서 남은 5년 동안 1조 4976억원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기간과 아특법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진은 민주평화교류원.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적극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아특법 시행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 매칭비율이 50:50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향후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해야 조성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재원 조달계획 없이 방향만 제시 '기대반 우려반'

### 광주시 11대 산업 육성계획

### 드론산업은 전남과 중복 문제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혁신성장을 통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를 위해 '노사상생도시, 인공지능 기반 도시, 일자리 중심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11대 대표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산업비전과 11대 대표산업 집중 육성 방향'을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광주시 내부적으로는 지역기업 육성과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중앙부처를 향해서는 지원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효과가 있다.

지역기업과 경제인 입장에서도 광주시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련 사업 추진시 광주시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알아내기가 어렵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효과에도 이날 발표된 광주시의 11대 대표산업 집중 육성 방침에는 적지 않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11대 대표산업 집중 육성이라는 방향과 과제는 제시됐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입 계획이 없거나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산업 및 수소산업 역시 에너지 전용산업 조성, 에너지 관련 연구 인프라 조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핵심 과제 설정은 돼 있으나,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구체적 로드맵과 재원 마련 및 투입 계획이 누락돼 있다. 5G 기반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역시 4차산업혁명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은 설정됐지만, 구체적 로드맵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인공지능(AI)산업의 경우 홀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분야다. 다른 자치단체가 고속도로·

공항 건설 등 SOC 사업에 욕심낼 때, 광주는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러나 인공지능 산업발전의 열쇠는 '정예화된 인재' 또는 고급 석박사 등의 인재 보유 여부가 필수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인공지능 관련 인재양성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드론산업 육성의 경우에도 고층 등 전담 7700억원 규모의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앞서 발표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시·도 상생 발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광주시가 이날 발표한 11대 대표산업은 ▲친환경자동차산업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광융합산업 ▲에너지 및 수소산업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스마트 뿌리산업 ▲인공지능 및 드론산업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김치 및 음식산업 등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문 대통령 오늘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 제시

문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 8시30분부터 80분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KBS 기자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에선 경제, 사회, 외

교안보, 국내 정치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오고 갈 예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8일 통상적인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비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상적인 보고

외에는 오늘과 내일(9일) 인터뷰 준비를 하실 듯하다"고 했다.

국내 언론과 첫 인터뷰에 응한 데는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이고, 현 정국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직접 대국민 대담 인터뷰를 통해 설명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

## 어머니를 화폭에 담을 수 있는 화가가 부럽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266) 어머니의 초상

어머니날 즈음이어서였을까. 꿈속에서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집안일을 해주러 오셨다는 것이다. 꿈속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말을 위한 걱정과 염려 가득한 모습에서 울다가 잠에서 깬다.

딸들의 꿈속에서 나는 어떤 엄마일까. 딸들의 기억에도 엄마라는 존재가 언제나 곁에 있으며 엄마의 손길이 주는 편안함이 있었을까. 친정엄마를 꿈속에서 만난 후 한동안은 좋은 일이 많이 생겼던 것처럼 나도 딸의 꿈속에서 반가운

엄마였으면 좋겠다.

화가들이 때로 부러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 특히 자신의 어머니를 화폭에 담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렘브란트, 뒤러, 앙그르, 마네, 폴 세잔느, 피카소 등 세계적인 거장들은 예외 없이 어머니의 초상을 그렸다. 아니 어쩌면 화가 못지 않은 열정과 재능을 지닌 어머니들이었기에 그 보살핌 덕분에 자녀들이 회화의 거장이 되어 어머니의 초상을 남기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제임스 맥닐 휘슬러(1834-1903)의 일명 '화가의 어머니'(1871년 작)는 미국의 제1회 어머니날을 기념하는 우표(1934년)로 제작되었을 정도로 유명한 그림이다. 회색조로 차분히 그려진 실내에 검은 드레스와 흰 레이스 모자를 두른 어머니의 모습이 고요하고 단아하다. 단정하게 모든 두 손은 반듯하게 살림을 돌보고 자녀들을 살뜰히 키워냈을 것이다.

화가 어머니의 초상에 대해 "나에게



제임스 휘슬러 작 '화가의 어머니'

야 어머니의 초상이 의미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누구이든 무슨 상관있겠느냐"며 작품의 제목을 '회색과 검정의 배열 제1번'이라 불렀다고 한다. 자신의 작품에서 어머니라는 모델이 지닌 의미보다는 색채들의 조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화가의 의도와는 달리 이 그림은 오늘날 '화가의 어머니'를 조월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를 그린 보통 사람들이 어머니 모습의 대명사가 되었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최단 2년6개월**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암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 2019년 8~10월 준공예정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전국대표 ☎1588-1543·010-3645-1479